

클래시스, 21년 4분기 매출액 253억 원...전년 동기대비 21% 증가

- ▶ 2021년 4분기 매출액은 253억 원, 영업이익 114억 원...전년 동기 대비 각 21%, 28% 증가
- ▶ 울트라포머3의 해외 각국 인지도 높여 꾸준한 판매 증가 유지로 실적 성장 견인

[2022-02-16] 클래시스(214150, 대표이사 정성재)가 지난 15일 연결재무제표(잠정)실적 공시를 통해 2021년 결산 실적을 발표했다.

2021년 4분기 매출액은 25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다. 전 분기(2021년 3분기)인 245억 원 대비 3% 증가하여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기록했다.

국내에서는 슈링크 유니버스에 대한 대기수요로 매출액이 감소했지만 울트라포머3(해외명: Ultraformer III)가 해외 각국에서 인지도를 높여 꾸준한 판매 증가를 유지했다. 슈링크(Ultraformer III)의 글로벌 누적판매대수는 9,000대를 돌파했다.

영업이익은 11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다. 전 분기 133억 원 대비 다소 감소했으나 국내의 슈링크 브랜드 홍보를 위해 모델 이나영을 광고 프로모션 모델로 선택한 것과 연말 재고조정으로 인해 일시적 원가 증가가 그 이유이다.

클래시스 관계자는 "연말 재고조정은 일회성 요인으로 1분기부터는 원가율이 소폭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당기순이익은 8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했다. 2020년 4분기에는 법인세 약 65억원이 환급되어 영업이익보다 당기순이익이 높았으나 2021년 4분기에는 평균 법인세율이 적용된 점이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클래시스 관계자는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을 넘어선 주요 국가는 2020년에 8개 지역에서 2021년에는 12개 지역으로 증가했다. 이들 주요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76%에서 2021년 86%로 클래시스 전사 매출 성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라며 "지난 1월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한 슈링크 유니버스가 월 판매 200대를 빠르게 돌파하여 시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기대감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클래시스는 지난 1월 28일 신규사옥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주소지는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08(역삼동) 클래시스다. 끝.

※ 사진자료



▲클래시스 CI

※ 클래시스 실적

구분(백만원)	4Q20	4Q21	yoy
매출액	20,877	25,320	21%
영업이익	8,944	11,434	28%
영업이익률	43%	45%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6,932	11,226	62%
지배기업소유주지분순이익	13,205	8,770	-30%

구분(백만원)	2020	2021	yoy
매출액	76,461	100,597	32%
영업이익	40,609	51,713	27%
영업이익률	53%	51%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39,293	55,625	42%
지배기업소유주지분순이익	38,155	42,895	32%